

재외동포경제인들은 들러리가 아니다

2013년 3월, 한국 관세청은 미국산 수입 완성차에 대한 대규모 원산지 검증 조사에 나섰다.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라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라도 내부 구성품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이 아니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통상 자동차 원가의 절반 이상(55%)이 미국산이어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자동차 회사의 차량이 엔화 강세를 피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자 우리나라 관세청이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러한 원산지 증명은 한국 상품도 예외가 아니다. FTA 체결국 세관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원산지 확인서를 살펴보고, 규정에 어긋났다고 판단되면 세관에 검증을 요청하거나 직접 해당 업체를 조사하게 된다. 그 결과 원산지가 아니라는 판명이 나면 기업은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문제는 원산지 증명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점에 있다. 또한 FTA 체결국마다 원산지 규정이 달라 해당 국가에 맞는 원산지 증명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전 세계 47개국이라는 점은 한편에서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 못하면 관세혜택 못 받아

대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필요한 경우 전담 조직이나 부서를 두고 전문가를 활용해 FTA 체결국으로 수출 시 원산지를 증명하면 된다. 문제는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이다. 1979년 이래 34년 만에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첫 주제가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지원 대책 마련’으로 선정될 만큼 이들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주체지만, 원산지 증명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한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원산지가 증명될 경우 그 혜택이 얼마지나지 않더라도 이를 감당할 조직과 비용이 없어 FTA의 관세혜택을 포기하고 있다. 2014년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국정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해 세관으로부터 추정당한 세금은 2011년 160억원이던 추징액이 본격적으로 FTA가 시행된 2012년 이후 4배 가까이 증가

했다. 추정 사유 중 가장 많은 게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이라고 하니, 중소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알면서도 포기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원산지 관리사’들이 있다.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일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원산지 관리사들은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업무를 도맡아 수행함으로써 FTA 체결의 혜택이 중소기업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내산 중간재 활용 높이기도...

원산지 관리사 업무의 중심에 놓인 것은 바로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다. 이는 원산지 관리사의 업무일 뿐만 아니라 FTA를 비롯한 경제통합의 핵심 요인이다.

품목별, 국가별로 기준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FTA와 같은 무역특혜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협약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역장벽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은 특혜에 대한 제3국의 무임승차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오렌지 농축액의 원산지 증명이 이슈로 부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FTA 체결 전 54%였던 관세율이 한·미 FTA 발효 직후 0%로 낮아졌는데, 미국 오렌지 수출업체 4곳에서 브라질산 원액을 섞어 한국으로 수출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규모 조사가 실시됐다. 브라질산 원액을 섞은 제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관세혜택을 보게 된다면 한·미 FTA의 혜택이 비협약국인 브라질에 돌아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원산지 규정은 중간재의 수요를 억제 생산자에게 집중시켜 무역협약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즉, 무역협정 체결 전에는 생산 재료에 해당하는 중간재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을 수입해 사용했으나 무역협정 체결과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국내산 중간재를 활용,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중간재 구입에서 이전보다 높은 비용이 수반되지만 관세 감면혜택으로 인해 보다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 관리사들은 원산지 규정의 이런 특성을 활용해 중소기업들이 최근 활발해진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도 원산지

관리사들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아 2013년 이들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했다.

현재까지 약 1700명의 합격자들이 실무 현장에서 활동 중이지만 그 숫자가 중소기업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FTA 체결, 그리고 중·국과의 FTA 협상 등으로 인해 원산지 관리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이다.

‘스파게티 볼 효과’ 줄이는 역할

한편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무역수지 자료에서도 원산지 관리사들의 정교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발효한 9개의 FTA 가운데 ‘한·유럽연합(EU)’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한·칠레’ 협정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스파게티 볼 효과’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있다. 스파게티 볼 효과란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협정마다 상이한 원산지 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거래비용이 높아져 FTA로 인한 혜택이 반감된다는 내용이다.

한 국가와의 원산지 증명도 복잡한데, 이를 서로 다른 여러 협약국의 규정에 맞추려다 보니 FTA로 인한 이득보다 비용이 커지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원산지 관리사들의 정교한 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마다 상이한 원산지 규정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비효율성이 높아진 생산과 공정, 수출 과정을 원산지 관리사의 도움으로 보다 효율적

으로 풀어나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기 방식이 ‘made in Korea’로 통일됐던 것에서 2014년 하반기부터 ‘Processed in Korea’ ‘Assembled in Korea’ 등으로 다양해지는 것도 원산지 관리사의 중요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이는 한국에서 단순 가공 및 조립된 제품일지라도 한국산 수출품으로 인정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최종재 대비 부가가치가 40~50%인 중간재를 수입한 뒤 한국에서 가공 혹은 단순 조립하여 최종재로 만들어 수출하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 체결국 간에만 혜택을 공유하는 FTA 체결국에서의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원산지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규정 자체가 없는 신흥국에서는 넓은 의미의 ‘한국산’ 표시 상품이 한류와 맞물려 시장 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관리사들의 역할은 FTA와 관련된 원산지 업무뿐만 아니라 신흥국 수출과 관련된 업무로까지 그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이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 및 절차를 의미하며,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한 국가 간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후자는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판단해야 할 경우에 사용된다. /김동영

우리금융-우리은행 합병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11월 1일 합병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간 합병을 인가했다.

우리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우리금융지주는 소멸회사로 11월 1일 합병한다.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된다.

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1대1이며 우리은행은 다음달 19일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된다. 우리금융 주주들을 대상으

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구주권 제출, 채권자로부터 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끝내면 두 회사의 합병은 마무리 된다.

우리금융과 은행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오는 21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대매수청구한 주식이 우리금융 발행 주식 총수의 15%가 넘으면 합병이 무산된다.

현재 정부는 우리은행 소유 지분을 경영권 지분(30%)과 소수지분(26.97%)으로 나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변화하는 중국시장을 잡아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신규 유망품목 발굴을 통한 대중국 수출확대에 박차를 가하고자 지난 16일 상하이에서 ‘한국우수 농식품 대중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홍콩 등 중화권 소재 총 45개 바이어 및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해 한국의 전통식품, 쌀 가공식품, 영유아식품 취급 수출업체와 1:1 매칭 상담회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바이어의 관심이 높았던 품목으로는 유아용 쌀 가자와 밀 음료,

분말요거트, 야채주 등이었으며, 총 1100만불에 달하는 상담성과를 거뒀다.

본 상담회 기간에는 수입식품 온라인 판매규모가 가장 큰 ‘상하이 1호점’ 견학 및 중국 온라인 시장 현황 브리핑 청취를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온라인 시장에 대한 국내 수출업체의 이해도 제고 기회를 마련해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aT 유망식 식품수출이사는 이번 상담회는 “그간 인기 있던

유망품목 외에 중국 시장에 신규진출을 희망하는 쌀 가공스낵, 유아용식품, 냉장냉동 식품 등 현지 트렌드를 반영한 품목 취급업체 위주로 참가해,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도가 높았다”면서 “한 중 FTA를 앞두고 더욱 부상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온 오프라인 전방위적으로 신규 유망 품목이 뻗어나갈 수 있는 사업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종합

한국지식재산산업화협회

기술산업화센터 설립추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통해 역내 소득 및 고용확대 도모

한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피케티 신드롬’을 몰고온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파리지제대 교수는 한국의 ‘富 불균형 해법은 지식기반 확대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피케티 교수의 ‘富 불균형 해법’인 지식기반 확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민간협회에 있어 주목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산업화협회(회장 김종현)는 글로벌 사업화를 통해 기술,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여 성장률을 제고하고, 청년, 실업자 및 사회 배려층 등에 좋은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다각적인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지역기반의 기술산업화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종현 회장은 국내의 낮은 R&D(연구개발) 생산성 개선에 대하여도 센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내 연구개발의 양적성장은 2012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1위, PCT특허출원 세계5위 등 세계수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연구개발 생산성은 단 1.49% 일이다. 연구개발을 위해 100억을 투자했다면, 1.5억원 정도를 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연구생산성의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기술수요를 심

층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것과, 이미 개발된 우수한 기술을 국내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규모의 사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곧 설립될 기술산업화센터는 구성원들의 전문적인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매가 되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국지식재산산업화협회가 추진 중인 기술산업화센터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우선, 설립추진의 주된 기관인 한국지식재산산업화협회는 이미 기술산업화에 있어 올해 상반기에만 4건, 50여억원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협회가 보유한 전문가 집단에 의해 우수한 특허 및 기술을 발굴하여, 전세계 주요 산업계의 글로벌 기업, 지식재산 전문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마케팅을 전개한 결과이다. 앞으로 센터설립을 통해 이러한 역량과 네트워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맞물린다면 그 성과가 한층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지식재산 유관 단체와 합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센터설립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할 분담을 논의하는 등 단계마다

의 고유 역량을 센터에 결집하여 통합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설립 후 기술산업화센터가 추진할 정책내용은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플랫폼의 구축, 공공기술 이전 및 중소, 중견기업 사업화 촉진,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기술이전 사업화의 글로벌 지원 정책, 지역협의체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정책들의 추진 및 관리주체가 되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은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사업화 전문가 양성 및 여성, 사회적 배려자 재취업 통해 직, 간접적으로 연 1만여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은 물론 민간부문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촉진을 통해 역내 소득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1~2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술산업화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선례를 만들어 향후 전국적으로 센터의 설립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

한민족음악동호회 회원 모집

한민족음악동호회 소개

한민족음악동호회는 한중문화예술발전과 교류활성화, 문화예술을 통한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한중국동포들로 무어진 봉사단체로서 중국동포 문화예술인재를 발굴하고 문화예술봉사를 통하여 한중 전통문화를 알리고 보급하면서 내국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봉사단체입니다.

한민족음악동호회는 영등포구 문화예술동호회, 서울시 "재능나눔봉사단"으로 선발된 봉사단체임

모집인원: 무용, 노래, 악기연주, 만담 등 문화예술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동포

가입문의 : ☎ (02) 2637-0814, H P : 010-6866-0815

삼성골프클럽 연습생 모집



골프에 관심있는 남, 여 모두 신청 가능
티칭프로에 의한 친절하고 철저한 1:1
개인레슨, 레슨비용 월/15만
레슨 상담전화 : 010-3068-1872

정규회원 골프장 이용료

1개월/200,000원, 3개월/550,000원
6개월/1,050,000원, 12개월/1,900,000원

주간회원 골프장 이용료:

골프장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68번지(2호선 문래역 3번출구)

1개월/165,000원, 3개월/470,000원, 6개월/900,000원, 12개월/1,700,000원

※오전8시부터-오후16시까지체크-인. (17시20분 종료)※

탁카이용 : 3개월/30.000원, 6개월/60.000원, 12개월/100.000원